



제주 화재 발생건수·피해 1월부터 심상찮다

66건·2명 사망… 전년동기 52건·0명 견줘 증가 추세
서귀포·서부소방서 관할 급증… 부주의·전기적 요인

최근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올 들어 제주에서 화재 발생이 빈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한 달 만에 화재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는 66 건(실화 43, 방화 1, 미상 2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건(실화 40, 방화 1, 미상 11)보다 14건(26.9%)

늘었다.

이들 화재로 사상자 3명(사망 2, 부상 1)이 발생했고 재산피해 규모도 부동산 4억8300만원, 동산 1억7800만원 등 총 6억6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월 부상자 4명, 재산피해 4억3100만원에 비해 사망자는 2명(200%), 재산피해액은 2억3000만원(53.4%) 증가했다.

화재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19곳, 산업시설 16곳, 차량 8곳, 임야 6곳, 야외 도로 5곳 등이다. 지난해보다

주거시설에서 3건, 산업시설에서 8 건이 각각 늘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여전히 부주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기준, 소방서별 화재 발생건은 ▷제주소방서 27→19건 ▷서귀포소방서 7→15 건 ▷서부소방서 8→16건 ▷동부소방서 18건(동일) 등이다. 사망자는 제주소방서와 동부소방서 관할에 서 각 1명씩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인명·재산피해 규모는 총 2878 건(575.6건, 이하 연평균 생략)·158 명(사망 20(5.8%), 부상 138

(24.6%)·427억5100만원(85억50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4 건·22명(사망 3, 부상 19)·67억9500만원 ▷2022년 612건·41명(사망 6, 부상 35)·121억4600만원 ▷2023년 556건·30명(사망 3, 부상 27)·59억5900만원 ▷2024년 600건·33명(사망 5, 부상 28)·91억1700만원 ▷2025년 566건·32명(사망 3, 부상 29)·87억3400만원 등이다.

이 기간의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1041건(208.2), 전기적 요인 964 건(192.8) 등이 많았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496곳(99.2), 산업시설 478곳(95.6), 차량 353곳(70.6) 등에 집중됐다.

백금탁기자

“70여 년 만 가족 품으로…
진상 규명·지원 뒤따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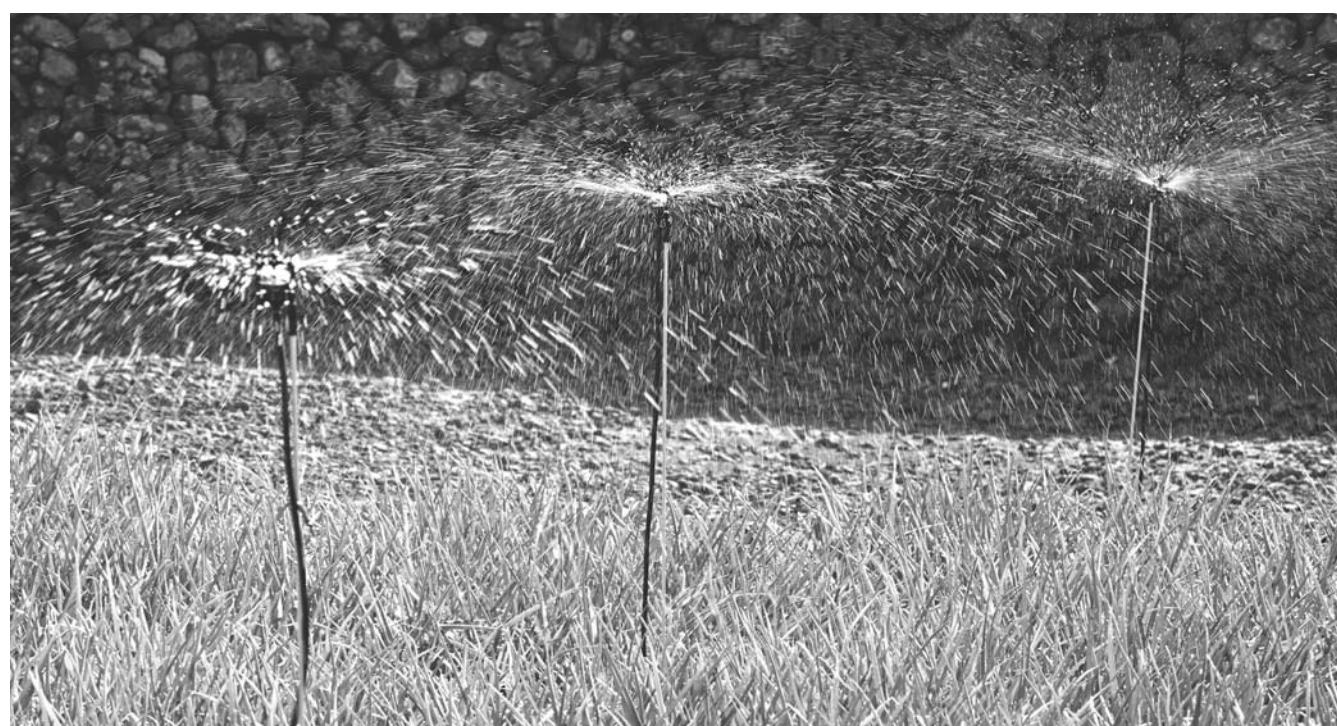
국민의힘 제주도당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4일 “형무소에 수감된 뒤 광산으로 강제 동원돼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7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확인된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도당은 “어떠한 시대와 이념을 떠나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침해된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바로 세우는 일은 갈등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이번 유해 봉환을 계기로 강제 동원과 수형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4·3 소작전 당시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당시 피해 내용을 청취해 국가가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4·3 특별법 개정 노력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월 1일에는 제주도당이 4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 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메마른 대지에 생명수를… 4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한 농가에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저소득 장년 1인 가구 대상포진 접종 지원

제주시, 신제주·솜다리 로타리클럽·한라병원 협력

제주시 지역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지원된다.

시는 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저소득 장년층 1인가구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을 위해 국제로타리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솜다리로타리클럽·(의)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과 업무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고가의 비용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 이뤄졌다.

상호 협력을 통해 제주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홍보와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등을 지원한다. 신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은 사업 기획과 예산 6000만원 지원, 예방접종기관 진행사항을 관리하

고, 제주한라병원은 예방접종 시행과 접종 관련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접종 지원 대상은 앞으로 추천·선발하며, 1인당 접종비 18만원이 지원된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에 협력한 국제로타리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과 솜다리로타리클럽,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력이 시민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든든한 지역돌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파쇄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손가락 절단

헬기로 서울 소재 병원 이송

왼손 손가락 3개가 절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내 병원에서 1차 처치를 받은 후 소방헬기 한라매를 타고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 2분쯤에 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가 개에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고산 수월봉 갯바위서 낚시객 2명 고립

해경·소방, 전원 무사 구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 2명이 해경과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2명이 물이 차올라 갯바위에 고립된 것 같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당시 갯바위에는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있었으며 해수가 점차 차오르면서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경은 이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현장 수심이 낮아 연안구조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 해경 구조대원 2명과 소방 구조대원 2명이 직접 입수해 낚시객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들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낚시는 물때와 지형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될 위험이 있다”며 “낚시 전 반드시 물때 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과 철수로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상악화나 해수면 상승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개발공사 사칭 ‘소방 물품’ 공문 주의 당부

공사 명의 도용한 납품 협조 위조 공문 확인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의 관련 업체에 공사를 사칭한 ‘긴급 소방 물품 납품’ 공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명칭과 직인을 위조해 ‘소방시설 긴급 접점에 따른 물품 납품 협조’라는 제목의 허위 공문이 일부 업체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위조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부서인 ‘시설사업팀’을 사칭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소방 물품 공급을 요청한다는 거짓 내용이 담겼다.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는 물품 구매와 용역 계약 체결 시 ‘나

라장(G2B)’ 또는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이나 이메일로 특정 업체와의 비공식적 거래를 알선하거나 개인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을 받을 경우 문서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제주개발공사 대표 번호(064-780-3300)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